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性差

Gender Differences in Adulthood Heterosexual Love Style According to the
Childhood Attachment and Autonomy in Relation to Mother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강진경
조교수 최혜경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Jean-Kyung, Kang

Assistant Prof. : Hye-Kyong, Choi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hildhood attachment and autonomy explain the gender differences in adulthood heterosexual love styles.

The study examines (1) the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attachment and autonomy and adulthood heterosexual love relationships, (2)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attachment and autonomy in relation to mother, and love styles in adulthood among men and women.

405 married or unmarried men and women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tudy. Such statistic analyses are engaged for this study a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that the relationships of childhood developmental pattern of attachment and autonomy to adulthood heterosexual love styles differ between men and women. That is, developmental pattern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autonomy to mother operate as a vulnerability factor in establishing adulthood love relationships, whereas childhood experiences do not explain adulthood love among

women. These gender differences are discussed in theoretical contexts which explain gender-differentiated process of separation from mother during childhood.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남녀간의 애정이 성인기의 삶과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가하고 남녀공학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남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애정, 정서적 매력 등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선, 한희선, 1995). 또한 결혼생활에서도 부부관계의 성과 애정적 기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이경희, 1995; 이영실, 1989; 최규련, 1987; 최혜경, 노치영, 1994), 최근 결혼 및 가족치료에서도 부부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을 크고 작은 부부문제들을 해결하고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다(Roberts, 1992).

연인관계와 결혼관계에서의 사랑(love)은 일(work)과 함께 성인기의 발달과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Erikson, 1950; Levinson 1986). 서구에서는 사랑의 개념 정의 및 측정도구의 개발과 사랑에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사랑보다는 일과 관련된 연구(강은령, 1989; 남유리, 1989; 최자령, 1991; 황현주, 1994)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 결혼적응(김혜선, 1992; 유은희, 1991; 이경애, 조병은, 1994; 이기숙, 1984) 등에 관한 연구들도 사랑을 관련변인이나 일부문항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에서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부각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랑은 개인, 연인, 부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남녀간에 사랑에 대한 지각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Senchak & Leonard, 1992; Sprecher & Mett, 1989), 이러한 성차는 이성관계에서 상호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최혜경, 박의순, 노치영, 1994). 그러므로 모든 이성관계에서 남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인 또는 결혼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에서의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그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견해 중 성역할 사회화 이론과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이론이 있다. 성역할 사회화 이론은 성(gender)과 관련된 특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사회화되고 학습되어서 성인기에 사랑을 지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본다(Grossman & Wood, 1993; Peplau, Hill, & Rubin, 1993). 그러나 성역할 사회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사랑의 지각과 행동에서 성차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남녀관계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랑을 감정 또는 행동의 단일 차원으로만 측정함으로써 성인기 사랑유형에서 성차가 과장되어 나타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이론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기에 이성간 사랑경험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이다(Chodorow, 1978; Hazan & Shaver, 1987). 그러나 아동기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에서의 성차가 인관성 있게 발견되지 못하여 아동기의 분리경험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들은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경험을 강조하고 자율화 과정을 간과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역할 사회화 이론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성인기 사랑에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

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경험에서 애착의 발달과 자율성의 발달을 함께 고려하고, 인지, 감정, 행동차원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사랑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사랑의 개념

각 학자들마다 사랑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방법, 그리고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사랑이 감정이나 정서 외에 인지, 태도, 행동의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다는 견해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Hatfield & Sprecher, 1986; Hazan & Shaver, 1987; Sternberg, 1986).

예를 들어 Lee(1977)는 사랑을 “한 상대방을 찾는 감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감정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일생 동안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Le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Hendrick과 Hendrick(1986)은 Love Attitude Scale(LAS)을 개발하여 에로스(eros), 스토르게(storge), 루두스(ludus), 매니아(mania), 프래그마(pragma), 아가페(agape) 등의 사랑유형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Hatfield(Hatfield & Sprecher, 1986)는 사랑을 인지, 감정, 행동의 하위요소를 가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사랑의 유형을 크게 열정적 사랑(passionate love)과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으로 구분하였다. Hatfield는 열정적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강렬하게 원하는 상태”로 우애적 사랑은 “삶이 깊게 관련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애정”으로 정의하였다. Davis와 Latty-Mann(1987)은 Relationship Rating Form(RRF)을 개발하여 사랑과 우정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관계모델을 제시하였고, 특히 사랑의 하위요소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므로 개인마다 사랑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Sternberg(1986)는 사랑의 삼각이론(triangular theory)에서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결

심/책임감(decision/commitment)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감정, 인지, 행동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친밀감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깝게 결합된 감정”으로,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이나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충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결심/책임감에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며, 장기적인 측면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는 책임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세 요소간의 상대적 수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Sternberg는 사랑의 세 요소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시도하여, 사랑이 아닌 것에서부터 좋아함, 도취된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열빠진 사랑, 성숙한 사랑까지 8가지 유형론을 개발하였다. 그는 Sternberg's Triangular Love Scale (STLS)을 통해 사랑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2. 사랑의 성차를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들

사랑의 지각 또는 행동표현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Cancian(1985)은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여성은 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나 감정적 몰입, 애정의 표현 등의 정서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반면, 남성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도구적인 도움이나 행동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고 제시하였다. Senchak와 Leonard(1992)는 아내가 남편보다 친밀감이 높고, 사회정서적인 표현을 더 잘했으며, Henley(1977)도 여성들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교가 남성들보다 뛰어나다고 제시하였다(Skolnick & Skolnick, 1980에서 재인용). Saxton(1983)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보다 더 오랫동안 관계에 헌신한다고 보고하였고(White, Speisman, Jackson, Bartis & Costos, 1986에서 재인용), Hendrick과 Hendrick(1987)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sexuality)에 대한 태도가 더 허

용적인 경향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성차의 패턴을 요약해 보면, 여성들은 사랑을 주로 정서적으로 지각하고 표현하는 반면 남성들은 주로 행동적으로 지각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성행동(sexuality)과 책임감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인기 이성간의 사랑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역할 사회화 이론에서는(Grossman & Wood, 1993; Peplau, Hill, & Rubin, 1993) 성과 관련된 특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사회화되고 학습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이러한 기대가 사회화되어 성인기의 이성관계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기대, 그리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증 연구들은 주로 성(gender),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성역할태도(sex-role attitude) 등이 친밀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Grossman과 Wood(1993)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남성과 여성의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면서 정서 경험의 성차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여성들이 인간적인 유대관계에서 보살피고 지지를 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며, 남성들은 도구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Sprecher와 Mett(1989)는 성역할 정체감에서 여성성과 양성성이 높은 사람들이 남성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사랑을 더 잘하며, 더 표현적이고, 관계에 대해 서로 더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성도 성역할 정체감에서 여성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계 행동과 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다(Winstead & Derlega, 1993).

성역할 사회화 이론과 이에 바탕을 둔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랑을 성역할태도, 성역할 정체감에 초점을 두고 사랑을 간접적으로 연구하였을 뿐 성역할태도가 어떤 경로로 사랑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과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

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사랑을 감정 또는 행동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함으로써 성차가 과장되어 나타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랑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White 등(1986)은 성(gender)이 사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때에 사랑의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dams(1968)는 사랑을 복합적인 다차원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언어적 자기표출 등의 하위차원들만 부각하거나 다른 단일차원을 부각하여 사랑을 측정할 경우 성차의 결과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학자들은(Chodorow, 1978; Rubin, 1983)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경험에 따라 성인기 사랑의 지각과 행동표현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본다.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고(Bowlby, 1958), 자율성이란 건강하고 성숙한 인성 발달의 한 특성으로 자신을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고 자아를 자기 행동의 주제로 인지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유은희, 1991). 애착과 자율성은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분리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다(유은희, 박성연, 1989; Hoffman, 1984; Kobak & Screey, 1988).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건강한 사회심리적 발달을 이루기 위하여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Cambell, Adams, & Dobson, 1984).

Chodorow(1978)는 특히 남성이 애착 및 자율성 발달에서 불연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애정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주로 계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정서적 유대를 통하여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반면, 남성의 성정체감은 주로 분리-자율성을 통해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의 성정체감에서 여성은 분리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정서적 유대의 상황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Chodorow(1978)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유아의 양육을 책임지는데 원인을 두고 있다. 즉 생애 초기에는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긴밀하고 미분화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자는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머니와 분리되어 아버지와 동일시하여야 하는데 비해 여자는 여성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분리 개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ubin(1983)은 이렇게 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과정이 성인기 이성간 친밀한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즉 자율성보다 애착을 발달시킨 여성은 그 결과 남성보다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친밀감을 더 잘 표현하는 동시에 남성으로부터 많은 친밀감을 원하게 되는 반면, 애착보다는 자율성을 발달시킨 남성은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을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는 사회문화적으로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들은 아동기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과정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이 친밀감 등의 애정관계에서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의 이론은 사랑의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과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으나, 실증연구들에서 개인의 발달단계와 문화상황에 따라 불일치된 결과들이 보고된다는 문제점이 있다(Frank, Avery & Laman, 1988; Steinberg & Silverberg, 1986). 또한 애착에 따른 사랑에 관한 연구들은 성차가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Senchak & Leonard, 1992). 이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은 애착 및 자율성 발달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함께 본 연구보다는 주로 애착만을 고려하여 조사한 연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에 대한 이론들은 자율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이 이론들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Bartholomew, 1990;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Shaver & Hazan,

1988; Simpson, 1990)은 아동기의 경험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율성 차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아동기의 경험과 성인기 사랑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3. 성인기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들

선행연구들은 사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연령이나 결혼관련 변인에 의한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ernberg(1987)는 사랑의 세 요소들이 각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친밀감은 처음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며, 열정은 낭만적 관계에서 빠른 발달 후에 습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결심/책임감 요소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대체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Acker와 Davis(1992)는 사랑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할 때는 특히 객관적 지표인 연령, 교제기간과 함께 주관적 지표인 결혼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연구결과 행동적 친밀감은 미혼자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준이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준이 높았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수준이 높았다고 제시하였다. 열정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준이 낮았으며, 미혼자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책임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준이 높아지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계층과 사랑의 지각 및 행동표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적인(sexual) 요소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는데, Rainwater(1965)는 중류층의 아내들이 하류층의 아내들보다 결혼관계에서 성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고, 성교의 기능에서 출산보다는 만족이나 오락의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 성차가 나타나는가? 둘째, 성인기 이성간

사랑유형에 성차가 나타나는가? 셋째,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은 성인기 사랑유형과 관계가 있으며, 성에 따라 아동기 경험과 성인기 사랑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밖에 연령, 결혼지위, 교육, 소득수준에 따른 성인기의 이성간 사랑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연령이 만 18세에서 46세 사이의 연인이 있는 미혼남녀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195명(48.1%), 여성이 210명(51.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3세였다. 평균 교육수준은 14.3년이었으며, 가족전체소득은 평균 207만원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에서는 미혼이 214명(52.8%), 기혼이 191명(47.2%)이었고, 미혼인 경우 평균 교제기간은 27개월(약 2.2년), 기혼인 경우 평균 결혼년수는 6.3년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질문지는 과거를 회상하여 아동기에 경험했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을 묻는 문항과 현재의 이성관계나 결혼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을 묻는 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상자의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Hazan과 Shaver(1992)의 Adult Attachment Scale을 전효정(1994)이 변안한 문항에서 1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은 유은희(1991)가 Hovestadt(1985), Frank 등(1988)과 Brendt(1983)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서는 9문항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애착과 자율성의 응답은 7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응답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에 0점부

터 '매우 그랬다'에 6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게 하였다. Cronbach Alpha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애착은 $\alpha = .83$, 자율성은 $\alpha = .82$ 이었다.

사랑은 인지, 감정, 행동의 하위요소를 가진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친밀감과 책임감은 Sternberg(1986)의 Triangular Love Scale (STLS)과 Acker와 Davis(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문항을 변안, 수정하였고, 열정은 Davis와 Todd(1985)의 Relationship Rating Form(RRF)의 문항들을 변안,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사랑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삭제, 수정한 후 본 조사에서 모두 28문항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사랑의 측정은 7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응답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6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정도가 높도록 하였다. Cronbach Alpha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친밀감, 열정, 책임감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alpha = .93, .84, .93$ 이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 실시에 앞서 1995년 9월 1일~13일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미혼, 기혼남녀 47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질문지법에 의해 예비조사를 거친 후, 1995년 9월 17일~30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부가 배부되었고, 450부(90%)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450부 중 연구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45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평균값 등을 알아보았고, 각 변인간 관계는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서의 성차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은 애착의 발달과 자율성의 발달이 상호 관련되어 있고, 단일차원이 아닌 두 개의 차원으로 각기 발달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 즉 애착과 자율성 각각의 평균 점수(57.6, 25.9)를 기준으로,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기준보다 높으면 균형된 유형(I : 친밀하면서도 독립적인 유형), 애착은 기준보다 높으나 자율성은 기준보다 낮으면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II : 친밀하나 의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애착은 기준보다 낮으나 자율성은 기준보다 높으면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III :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 애착과 자율성 모두 기준보다 낮으면 미발달된 유형(IV : 소원하면서 의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유은희, 1991). 이와 같은 유형 분류법에 의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의 분포는 <표 1>과 같이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34.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31.9%), 균형된 유형(19.0%), 미발달된 유형(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가 균형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들과 Hazan과 Shaver(1987)의 보고와는 상이하나, 동일한 자율성 발달척도를 사용한 유은희(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성(gender)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애착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40.0%)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38.6%)이 가장 많았다.

2. 성인기 사랑유형에서의 성차

성인기 사랑의 유형은 Sternberg(1986)의 삼각이론과 개념을 기반으로, 사랑의 세 요소의 평균 점수(친밀감: 52.0, 열정: 35.5, 책임감: 37.6)를 기준으로 먼저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분류의 결과는 <표 3>과 같이 Sternberg(1986)가 제시한 8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났으며, 성숙한 사랑유형(3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발달된 사랑유형(26.7%), 공허한 사랑유형(12.8%), 우애적 사랑유형(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보고가 많이 된 친밀감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8가지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즉 성숙한 사랑유형과 미발달된 사랑유형 외 친밀감을 기준으로 하여 친밀감이 높은 사랑유형(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좋아함)과 친밀감이 낮은 사랑유형(열빠진 사랑, 도취성 사랑, 공허한 사랑)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결과 친밀감이 높은 사랑유형이 19.0%, 친밀감이 낮은 사랑유형이 21.2%로 나타났다.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과

<표 1>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의 빈도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		애착, 자율성의 정도		빈도 (%)
		애착	자율성	
I	균형된 유형	상	상	77 (19.0)
II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상	하	129 (31.9)
III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	하	상	141 (34.8)
IV	미발달된 유형	하	하	58 (14.3)
합계				405 (100.0)

〈표 2〉 성별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

성	발달 유형	균형된 유형 빈도(%)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빈도(%)	불안정하게 독립적 유형 빈도(%)	미발달된 유형 빈도(%)	합계 빈도(%)	χ^2
	남		43 (22.1)	48 (24.6)	78 (40.0)	26 (13.3)	
여		34 (16.2)	81 (38.6)	63 (30.0)	32 (15.2)	210 (51.9)	
합계		77 (19.0)	129 (31.9)	141 (34.8)	58 (14.3)	405 (100.0)	

* p < .05

〈표 3〉 사랑유형의 빈도

사 랑 유 형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정도			빈도 (%)	
			친밀감	열 정	책임감		
I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	상	상	상	134 (33.1)	134 (33.1)
II	친밀감이 높은 사랑	낭만적 사랑	상	상	하	14 (3.5)	77 (19.0)
		우애적 사랑	상	하	상	43 (10.6)	
		좋아함	상	하	하	17 (4.2)	
III	친밀감이 낮은 사랑	얼빠진 사랑	하	상	상	20 (4.9)	86 (21.2)
		도취성 사랑	하	상	하	17 (4.2)	
		공허한 사랑	하	하	상	52 (12.8)	
IV	미발달된 사랑	미발달된 사랑	하	하	하	108 (26.7)	108 (26.7)
합 계						405 (100.0)	405 (100.0)

사랑유형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사랑유형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4.44$, $df=3$, $p=.93$).

3.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과의 관계에서의 성차

우선 아동기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별로 성인기 이성간 사랑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chi^2=21.44$, $P<.05$). 애착과 자율성 모두 높은 유형(균형된 유형 - 35.1%)과,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유형(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 39.5%), 그리고 애착과 자율성 모두 낮은 유형(미발달된 유형 - 44.8%)에서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이 다른 사랑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애착과 자율성의 수준이 비교적 비슷하게 발달한 유형이나, 자율성보다는 애착이 더 발달한 유형이 사랑의 세 요소를 모두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율성이 높고,

애착이 낮은 유형(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에서는 미발달된 사랑(33.3%)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특히 남성에게서 미발달된 애착 및 자율성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 보다 비울적으로 더 많이 성숙한 사랑유형을

〈표 4〉 남녀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별 사랑유형

성	사랑유형 발달유형	성숙한	친밀감이	친밀감이	미발달된	합 계	χ^2
		사랑 빈도(%)	높은 사랑 빈도(%)	낮은 사랑 빈도(%)	사랑 빈도(%)		
남	균형된 유형	15 (34.9)	9 (20.9)	7 (16.3)	12 (27.9)	43 (22.1)	21.65* (df = 9)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21 (43.8)	7 (14.6)	12 (25.0)	8 (16.7)	48 (24.6)	
	불안정하게 독립적 유형	15 (19.2)	14 (17.9)	23 (29.5)	26 (33.3)	78 (40.0)	
	미발달 유형	15 (57.7)	5 (19.2)	1 (3.8)	5 (19.2)	26 (13.3)	
합 계		66 (33.1)	35 (17.9)	43 (22.1)	51 (26.2)	195 (100.0)	
여	균형된 유형	12 (35.3)	7 (20.6)	7 (20.6)	8 (23.5)	34 (16.2)	14.40 (df = 9)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30 (37.0)	22 (27.2)	9 (11.1)	20 (24.7)	81 (38.6)	
	불안정하게 독립적 유형	15 (23.8)	10 (15.9)	17 (27.0)	21 (33.3)	63 (30.0)	
	미발달 유형	11 (34.4)	3 (9.4)	10 (31.3)	8 (25.0)	32 (15.2)	
합 계		68 (32.4)	42 (20.0)	43 (20.5)	57 (27.1)	210 (100.0)	

* p < .05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간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각각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사랑유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는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간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을 균형 있게 발달시켰거나(균형된 유형 - 34.9%, 미발달된 유형 - 57.7%), 자율성을 낮게, 애착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켰을 경우(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 43.8%)에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애착 수준은 낮게 자율성 수준은 높게 발달시켰을 경우(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에는 미발달된 사랑(33.3%)이나 친밀감이 낮은 사랑(29.5%)을 하는 비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의 균형적인 애착경험이 이후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발달이론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기타

분석에서 연령, 결혼지위, 교육수준과 사랑유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연령 F=4.42, p < .01; 결혼지위 F=26.87, p < .001; 교육수준 F=23.72, p < .001),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사랑유형별 연령을 비교해 보면, 성숙한 사랑과 친밀감이 낮은 사랑유형의 대상자가 미발달된 사랑유형의 대상자보다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와 사랑유형의 관계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기혼자일 경우 네 가지 사랑유형 중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39.8%)이 가장 높았고, 미혼자

일 경우에는 미발달된 사랑유형의 비율(3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사랑유형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고졸자인 경우에는 미발달된 사랑유형이 36.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연구대상자가 대학 재학 이상자인 경우에는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성인기의 이성간 사랑 경험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에서 남녀간에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애착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유형인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유형인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개별화 과정이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학자들(Chodorow, 1978; Gilligan, 1982)의 주장과 일치한 결과이다. 즉 생애 초기에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자는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어머니와의 분리 경험을 하는데 비해 여자는 여성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와의 분리 개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남성은 애착보다 자율성이 발달하는 반면 여성은 자율성보다는 애착이 발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를 볼 때 균형된 유형 보다 불안정한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균형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의 연구대상들에게 아동기의 경험을 회고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직접 아동에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회고식과 관찰법이라는 측정방법상의

차이보다는 애착에 대한 개념정의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애착과 자율성이 동등하게 강조되고 있는 본 연구와 달리 아동기 애착 연구들은 자율성보다는 애착의 차원이 강조되어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Bretherton, 1987; Isabella & Belsky, 1991).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회고식으로 측정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도 측정방법은 같으나 측정도구에서 애착만 강조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반면, 동일한 애착개념을 적용하여 애착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유은희(1991)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성인기 남녀의 사랑 경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사랑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Senchak & Leonard, 1992; Rubin, 1983)의 결과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불일치한 결과는 성인기 사랑 경험에 대한 정의 및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로 정의하고,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여성의 사랑점수가 더 높고, 행동 차원을 부각시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남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랑 경험에서의 성차가 과장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Adams, 1968; Skolnick & Skolnick, 1980)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랑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단일차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랑의 하위차원으로 인지나 감정뿐 아니라 행동차원을 포함시켜서 사랑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gender)과 사랑간 관계에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간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경험은 남성에게서 성인기의 사랑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 그리고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유형에서 성숙한 사랑의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다. 즉 정도와 상관없이 애착과 자율성이 비

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한 유형이나, 애착이 자율성보다 더 발달한 유형이 사랑의 세 요소를 모두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율성이 높고,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미발달된 사랑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발달이 성인기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의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와는 반대로 자율성의 발달이 친밀감에 대한 회피적 반응과 관련된다는 Rubin(1983)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또한 아동기의 자율성 발달경험이 특히 성인기 남성의 사랑경험에 취약요인(vulnerability factor)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Chodorow(1978)가 주장한 대로, 정체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분리되어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애착보다는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지만, 여아는 여성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분리 개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율성보다는 애착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관계의 측면에서 애착이 발달한 여성은 성인기 사랑의 관계에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주고받는데 무리가 없으나, 애착보다는 자율성이 발달한 남성은 성인기의 친밀감 표현을 자신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Rubin, 1983).

그러나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미발달된 유형의 남성들에게서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성인기 이성간 사랑에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나 자율성 경험 이외의 다른 변인들, 즉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성의 대인관계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Hazan과 Shaver(1990)의 연구에서 서로 애착유형이 다른 사람들끼리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호호혜적 관계가 애착 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변화의 방향이 불안정형에서 안정형으로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

겨진다. 특히 애착의 기반이 없는 자율성의 발달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취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착과 자율성의 정도가 둘다 약한 미발달된 유형이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에 비해 연인 또는 부부간의 사랑에서 상호호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본 연구가 쌍방적인 연구가 아니었고, 또한 미발달된 유형의 표본수가 58명으로 비교적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연령, 결혼지위, 교육수준에 따라 성인기의 사랑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거나 기혼인 사람들이 연령이 낮거나 미혼인 사람들보다 사랑에 있어서 성숙한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자인 경우에 미발달된 사랑유형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연구대상자가 대학 재학 이상자인 경우에는 성숙한 사랑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랑의 하위요소가 시간의 경과와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감정, 행동차원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성역할 사회화와 애착 및 자율성 발달의 두 이론을 통합해 성인기 사랑의 성차가 나타나는 실태를 파악하고,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사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성인전기의 이성관계와 결혼관계에서 사랑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극히 드문 실정에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사랑의 개념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가족 치료 및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인관계의 남녀에게 이성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배우자 선택과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자질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결혼관계에서는 배우자간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부부관계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인전기 남녀의 건전한 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척도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사랑개념을 규정하고, 활발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결과 남성만이 유의한 결과가 나오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동기 애착 및 자율성 경험과 성인기 사랑 경험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동일시 경험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을 모두 포함시킨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사랑은 상호호혜성과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연인 및 배우자를 쌍으로 연구하여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상호영향력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령.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취업주부/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2) 김혜선. 배우자 선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12집, 1992, 493 - 513.
- 3) 김혜선, 한희선.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995, 144 - 155.
- 4) 남유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5) 유은희.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6) 유은희, 박성연.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989, 149 - 162.
- 7) 이경애, 조병은.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129 - 143.
- 8) 이경희.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235 - 249.
- 9) 이기숙.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논문집, 17, 1984, 601 - 617.
- 10) 이영실.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 11) 최규련.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12) 최자령.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3) 최혜경, 노치영.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261 - 272.
- 14) 최혜경, 박의순, 노치영.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2(1), 1994, 171 - 180.
- 15) 황현주.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전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4.
- 16) Acker, M., & Davis, H.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1992, 21 - 50.
- 17) Adams, B. N. Kinship in an urban setting. In Skolnick, A. S., & Skolnick, J. H.(Ed.), *Family in Transition*(pp 219 - 230).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68.
- 18) Bartholomew, K. Avoidance of intimacy :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990, 147 - 178.
- 19)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1958, 350 - 373.
- 20) Bretherton, I.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 relations :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1061 - 1100). New York : John Wiley, 1987.
- 21) Cambell, E., Adms, G. R., and Dobson, W. R. Family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1984, 509-525.
- 22) Cancian, F. M. Gender politics : Love and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kolnick, A. S., & Skolnick, J. H.(Ed.), *Family in Transition* (pp. 219 - 230).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85.
- 23) Chodorow, N.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24) Collins, N. L., & Read, S. J.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1990, 644 - 633.
- 25) Davis, K. E., & Latty - Mann, H. Love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 A contribution to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4, 1987, 409 - 428.
- 26) Davis, K.E., & Todd, M. J. Assessing friendship :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Ed.),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pp 17 - 34). Berver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85.
- 27)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1950.
- 28) Frank, S.J., Avery, C.B., & Laman, M.S. Youth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ty*, 24, 1988, 729 - 737.
- 29)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M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30) Grossman, M., & Wood, W. Sex differences in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993, 1010 - 1022.
- 31) Hatfield, E., & Sprecher, S.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1986, 383 - 410.
- 32) Hazan, C., & Shaver, P.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987, 511 - 524.
- 33) Love and work : An attachment -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990, 270 - 280.
- 34) Hendrick, C., & Henrick, S.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50(2), 1986, 392 - 402.
- 35)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 - 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4, 1987, 281 - 289.
- 36) Hoffman, J. A.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984, 170 - 178.
- 37) Hyo - jeong, J.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A dissert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Cornell University, 1994.
- 38) Isabella, R. A., & Belsky, J.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tant - 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1991, 373 - 384.
- 39) Kobak, R.R., & Sceery, A.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percep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988, 135 - 46.

- 40) Lee, J. A.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77, 173 - 182.
- 41) Levinson, D.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1986, 9 - 13.
- 42) Peplau, L. A., Hill, C. T., & Rubin, Z. Sex role attitudes in dating and marriage : A 15-year follow-up of the boston couples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1993, 31 - 52.
- 43) Rainwater, L. Family Design : Marital sexuality, family size, and contraception. Chicago : Aldine. In Scanzoni, L. D., & Scanzoni, J.(Ed.), *Men, Women, and Change -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pp.310 - 359). McGraw - Hill, Inc, 1965.
- 44) Roberts, T. W. Sexual attraction and romantic love : Forgotten variables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92, 357 - 364.
- 45) Rubin, L. B. *The approach-avoidance : men, women, and intimacy*. Intimate strangers. NY : Harper and Row, 1983, 65 - 97.
- 46) Senchak, M., & Leonard, K. E.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1992, 51 - 64.
- 47) Shaver, P., & Hazan, C.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1988, 473 - 501.
- 48) Simpson, J. A.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Psychology*, 59(5), 1990, 971 - 980.
- 49) Skolnick, A. S., & Skolnick, J. H.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 50) Sprecher, S., & Mett, S. Development of romantic beliefs scale and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gender and gender - role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 Personal Relationships*, 6, 1989, 387 - 411.
- 51) Steinberg, L., & Silverberg, S.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1986, 841 - 851.
- 52) Sternberg, R. J.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986, 119 - 135.
- 53) White, K. M., Speisman, J. C., Jackson, D., Bartis, S., & Costos, D. Intimacy maturity and its correlates in you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 1986, 152 - 162.
- 54) Winstead, B. A., & Derlega, V. J. Gender and Close relationships :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1993, 1 - 9.